

<미술장터>

갈길 바쁜 '아트광주' 제자리 걸음

감독 예정자 사임으로 기본안·참여회랑 섭외 중단

예산 겨우 20% 확보…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무산

광주에서 열리는 미술 장터 '아트광주 2011'(9월1일~4일·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아트광주)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사 를총지휘 할 감독을 선정하지 못한 데다 참여 화랑 섭외도 지지부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진행할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시립미술관에 산으로 아트광주에서 작품을 사들이는 '화랑 유인책'마저 예산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성공 개최에 먹구름이 끼었다.

행사 주최측인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15일 "최근 감독을 맡기로 한 큐레이터 박만우씨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으로 선임돼 후임 감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당초 2월말까지 아트광주 행사 기본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참여 화랑 100곳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박씨의 사퇴로 모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아트광주의 기본안을 짠 TF팀에서 활동하며, 해외 홍보와 화랑 섭외를 담당하는 등 행사 준비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박씨의 사퇴로 화랑 섭외를 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될 집행위원회들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집행위원회들은 감독과 손을 맞

춰 일을 해야 하는 터라 후임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야 인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사 의결기구인 조직위원회 상견례도 오는 22일에야 열릴 예정이어서 감독 선임과 집행위원회 선정 등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감독과 집행위원회에 없어 아트페어 성공의 일쇠인 화랑 섭외는 애에 손을 놓고 있다. 14일 현재 아트광주를 찾겠다고 약속한 국내외 화랑은 단 한곳도 없다.

아트페어는 좋은 화랑을 섭외해 작품 판매를 늘리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국내에서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등 20여 개 아트페어가 열리는데 대부분 아트광주가 열리는 가을 무렵에 집중돼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여기다 국내 많은 화랑들이 일본, 중국, 미국 등 전세계에서 수많은 국제아트페어에도 참여하고 있어 차트 섭외가 늦어지면 참여 화랑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화랑 관계자는 "대부분 화랑들이 연초에 1년 계획을 미리 세워두기 때문에 지금 섭외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면서 "지난해 참가했던 화랑들도 올해는 광주를 찾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올해 아트광주 총 예산 10억원 중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원(국비



오는 9월 열리는 '2011 아트광주'의 총감독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0 아트광주'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9000만원, 시비 1억1000만원) 뿐이다. 지난해 시립미술관 예산 중 아트광주 작품 구입비로 1억원이 책정했지만 올해는 한 문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했다.

재단 관계자는 "준비가 늦어지고 있지만 감독과 집행위원이 선임되

면 화랑 섭외도 문제 없다"면서 "부족한 예산은 기업 후원금으로 채우고, 정부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품을 구입하는 아트뱅크에서 1억 5000만~2억원을 배정받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내일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김태련씨 특별강연



의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김태련(i KOREA 대표·사진)씨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한

다. 문의 010-8279-2399.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사)대한어머니회(회장 강은성) 며 회원은 2만여명이다. (사)대한어머니회는 기후변화 따른 환경문제와 가정에서의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운동인 '우리 엄마는 에너지 흡 닦다' 운동 등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400여명